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전주시, 9월 2일부터 정비사업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전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시민교육 강좌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된다. 전주시는 민선8기 들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마다 운영해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올해는 오는 9월 2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항 경영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

한 사항과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일반시민과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과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 기초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입문' 과정과 조합임원, 감사 등 조합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합 회계 및 예산, 정보공개 실무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

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특성상 토지 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니,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베트남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DI VINA는 22일 전주시청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완엽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식품 및 농산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산 농식품, 아세안 시장 진출

베트남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DI VINA와 협약 체결

전주시가 베트남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DI VINA(대표 김완엽)와 손잡고 지역 농식품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시와 DI VINA는 22일 전주시청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완엽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식품 및 농산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 시장을 단적으로 한 전주시 경제사절단이 지난해 11월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찾았던 베트남 방문의 성과물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K-푸드 확산과 전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 진출 전략 마련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시와

DI VINA는 향후 3년간(2025~2027년) 연간 100만 불씩 총 300만 불(약 4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올 연말에는 '한국-베트남 경제인 화합의 밤' 행사를 통해 DI VINA와의 본격적인 수출 계약 체결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협약의 상대인 DI VINA는 베트남에서 '두끼 떡볶이' 마스터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에만 16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밥 브랜드 '미카도 스시'와 삼진어묵 등 다수의 한식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기업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총력

기재부 예산실 방문해 파소·미반영 핵심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이 강한 경제와 문화로 새로운 전주를 구현할 핵심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는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국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기재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부처안에 미반영됐거나 파소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최대한 최종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만듦을 위한 것이다. 시는 기재부 의견 반영과 논리 강화 등을 통해 향후 4차까지 진행되는 심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우 시장은 핵심사업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국가 예산의 키패드를 건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실무과장들을 차례로 만나 내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핵심사업은 △구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혁신·탄성지구 야간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기치재 야간생태환경 조성' 등이다. 이밖에도 △AI·빅데이터 기반 가상융합산업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 등 거점을 조성하는 AI·빅데이터 기반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스포츠 초거점 확산 및 체육활동 활성화 기여를 위한 '호남권 전주 스포츠거점센터 건립' 등이다. 특히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성을 피력했다. 또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역 재해위험지구 정비 △민경강~백석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들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기재부 심의가 오는 8월까지 4차에 걸쳐 예정된 만큼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9월 2일까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우범기 시장을 중심으로 전주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더 많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꾸준히 찾아 사업설명을 진행하며 발품을 팔아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부처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미반영된 사업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주·전주 상생사업을 비롯한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주·완주 시티투어' 반값 이벤트 진행

전주시는 전주와 완주의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보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여름철 맞이 반값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름 특가 이벤트는 이달 7일부터 8월 말까지 출발하는 전주·완주 시티투어 상품에 적용되며, 1인당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주·완주 시티투어'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어 이용객들에게 가성비 여행 상품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매주 토요일 출발하는 '여름 1코스'는 전주의 한지박물관과 전주한옥마

을, 완주의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으로 구성된 코스이며,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여름 2코스'는 전주수목원, 완주의 오성한옥마을과 송광사를 여행하는 코스이다. 투어 예약 및 문의는 남북여행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063-285-8800)를 이용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덕진구청 1층 로비 '덕진갤러리 36.5' 상시 운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는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덕진갤러리 36.5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덕진갤러리 36.5는 덕진구청 1층 로비에 위치하며 총 42.32㎡의 크기이다. 대관 대상은 지역 기반 예술 활동가와 주민 등이며, 전시 장르는 한국화, 서양화, 사예, 사진, 조소 등 시각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다. 특히 덕진구는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연중 무료로 대관하고 있으며

대관 기간은 전시 별 3주 내외이다. 덕진갤러리 36.5 대관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063-270-6508)에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완주·전주 통합 공감대 확산 행보 이어가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 기업인들과 간담회 갖고 출근길 캠페인 동행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연속으로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연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이른 아침 전북 혁신도시 내 한 식당에서 완주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완주와 전주가 하나 돼 더 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완주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임동욱 이노비즈 전북지부장, 완주지역 5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행

정구역 통합을 통해 산업기반 확충과 투자 유치 여건 개선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 시장은 조찬 간담회 직후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혁신동이 만나는 절경지역인 혁신동 스포티움네거리에서 펼쳐진 출근길 통합 캠페인에 동참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효자1동 자생단체 회원과 완주지역 기업인, 전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완주 기업인 간담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민간단체 등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가 이뤄질 때까지 통합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